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8~5/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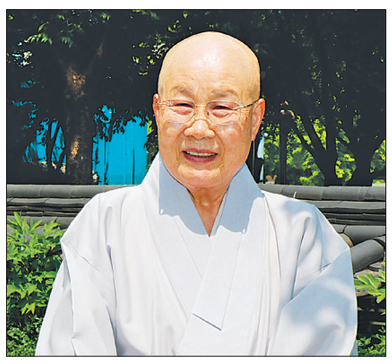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김성철/개정본)바코드변경판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2	법륜스님의 금강경강의(금강반야바라밀경)	법륜스님	정토	7	숨길따라 가는 길(암도스님)	여산암도	맑은소리맑은나라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4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지금 이순간이 내삶의 전부다	조치영	운주사	9	황벽산의 메아리(깨달음의 외길 조사선3)전심법요완릉록 강설	원오 역해	무량수
5	49재와 136지옥:죽은 뒤의 중음세계와 지옥순례	허암	운주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8편 수록 *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바른 길 전하는 화엄경, 꼭 한번들 읽어보세요"



대방광불화엄경(전 10권)
일초 스님 번역/민족사 펴냄/총 36만원



비구니 강백 일초 스님
'화엄경' 번역본 완간해
원문, 번역문 병행 수록
대조하며 뜻 이해 가능
6월14일 동학사서 봉정

〈대방광불화엄경〉(이하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설법한 경전으로 대승불교 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에는 일곱 장소(7처), 아홉 번의 법회(9회) 형식을 빌어 마치 한 편의 대하드라마처럼 광대하고도 황홀한 부처님의 세계와 그 세계로 향하는 보살들의 여정(普賢行)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다. 특히 〈화엄경〉 결론 부분이라 할 수도 있는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구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자기 마음속에 나타난 경계(自內證)를 그대로 털어 놓은 만큼 수행력이 뒷받침돼야 〈화엄경〉의 본뜻을 파악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을 〈화엄경〉을 비롯한 경전을 강의해 온 비구니 강백인 동학사 화엄학림 학장 일초 스님〈사진〉이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 분량의 〈화엄경〉을 완역해 출간했다. 국내 최초로 〈화엄경〉의 게송을 모두 뽑아서 원문과 함께 현토 · 번역한 〈화엄경 게송집〉(2016)을 출간한지 6년 만이다.

일초 스님에게 〈화엄경〉은 사문으로서 시작과 같다. 〈화엄경〉을 읽으면서 출가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찾은 절에서 번역된 〈화엄경〉을 읽으며 숨 쉴 수 없는 가슴의 먹먹함과 나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철학 서적들이 너무나 얕은 이야깃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출가를 결심하고 삭발해 부처님 경전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엄경을 통해 발심 출가하고, 한평생 강원에서 화엄경을 가르친 일초 스님이 〈화엄경〉 번역에 나선 것은 2018년 4월부터다.

스님은 특별히 〈화엄경〉 공부를 발원한 학인들을 모아 직접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80권의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씩 3년 넘게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온 정성 다해 새롭게 현토 · 번역 작업을 했다.

한 페이지의 왼편에는 경전 원문, 오른쪽에는 번역문으로 2단 편집하고, 될 수 있으면 직역을 한 것도 경전 원문과 대조하면서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가 익고 문리가 터질 수 있을 거라는 바램의 소산이었다. 그동안 출판된 여타 〈화엄경〉 번역서와 차별되는 특징도 여기에 있다.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누군가 이 책을 보고 옛적에 내가 그랬듯이 먹먹한 가슴과 흐르는 눈물이 있어서 출가를 결심하고, 또 후대에 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발원하며 이 책을 탈고했습니다."

일초 스님은 〈화엄경〉 번역본을 읽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도 했다.

"〈화엄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음이 범부와 부처를 만들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그 자리가 곧 지옥입니다. 나쁜 마음은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합니다. 〈화엄경〉을 읽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합니다."

한편, 동학사 · 동학사 승가대학 · 화엄학림은 일초 스님의 〈화엄경〉 번역본 출간을 기념해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막힌 길서 벗어나 새 길 찾자 …삶이 분명 극적으로 바뀐다"



인생 막막하고 지칠 때 열어보면 길이 보이는 책
이 시대 고통받는 이들 위한 노철학자 지혜 담아



길위의 길
송석구 지음
한스컨텐츠 펴냄/1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음으로 인한 내적 고난이든지, 외부 변화에 따른 뜻하지 않던 어려움이든지 고난에 맞설 때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책은 세상살이에 지칠 때 우리가 고향의 가족들을 찾아 힘을 얻듯이, 답답할 때 한 번씩 꺼내서 읽고 도움 받는, 그런 편안함을 주고자 한다. 해법은 고난보다 많다. 세상이란 지도를 읽는 지혜와 통찰을 가진다면 밝은 길은 항상 우리 앞에 늘 열려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 시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노철학자의 지혜가 담겨진 서신들을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와 전통 철학의 심오한 교훈 그리고 동서고금 현자들의 주옥같은 통찰을 쉽게 풀어서 들려준다.

저자는 책에서 강조한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나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좌절할 뿐"이라며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을 찾으면 우리는 인생을 막힘없이 평안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 막힌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 참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고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2차원의 평면 세계를 사는 개미는 눈앞의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라는 입체의 공간으로 올라간 것 뿐"이라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벽에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나는데, 만일 그때 스스로 좌절한다면 정신적 고통에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며 괴로워 할 뿐"이라며 "길 위에 또다른 길이 있고 그 길을 어렵지만 찾는다면 그 이후 우리는 인생을 막힘없이 평안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듯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우리가 고향 가족들을 찾아 힘을 얻듯이, 답답할 때 한번씩 꺼내서 읽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책이라는 의미일 것 같다.

▲저자 **송석구**는?

충남 대전 출생으로 동국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국립대만대학 철학연구소에서 수학했다.

동국대 · 동덕여대 · 가천의대 총장,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서 철학교수로 재직했으며, 평생 교육계에 종사했다. 교단에서는 한국철학을 주로 강의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유불사상〉 〈송석구 교수의 율곡철학 강의〉 〈송석구 교수의 불교와 유교 강의〉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대통합〉 〈율곡의 공부〉 등이 있다. 유교와 불교를 회통하는 동양철학으로 일가를 이루고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항상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마음이 조용하다면 화를 참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하루하루 내가 얼마만큼의 포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하다보면 조금씩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탐욕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초월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객관화시키라는 의미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옛 불교 〈원시경전〉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잃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살릴 수 없을까요?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며 부탁했다. 그러자 부처님이 아랫마을에 가서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 오라는 주문을 했다. 그 사람은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녀보았지만,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모두는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몸만 깨끗하거나 더럽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다.

이 이치는 비단 몸에만 적용됨이 아니다. 사회는 부, 명예, 외모 등 외적인 기준에 따라 분별한다. 나와 비슷한 집단인가 다른 집단인가로 구분하여 태도를 달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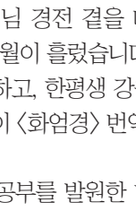
이러한 눈먼 자들이 차별과 집단 이기주의를 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으로 평등하다.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본질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길 바란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제34회
세계평화와 국가안녕을 위한
영산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일시 : 2022년 6월 6일(음. 5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봉원사 영산재보존도량
주최 : (사)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전화 : 02)392-3007~8 팩스 02)393-9450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옥천범음대학, 한국불교신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bongwonsa.or.kr http://www.yeongsanjae.or.kr